

OECD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작업반 회의 참석

- 홍석일 연구위원(중소·벤처기업연구실)

I. 출장자

- 홍석일 연구위원 (중소·벤처기업연구실)

II. 출장기간

- 2011년 10월 24일(월) ~ 27일(목)

III. 출장지역

- 프랑스 파리

IV. 출장목적

- 제 40차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작업반(WPSMEE : Working Party on SMEs and Entrepreneurship) 회의 참석

V. 작업반 토의 내용

□ 국제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정책

- 국제경제위기(2008~2009)에 따라 각국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추진
 -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도입을 통한 정책의 범위 확산(broadening)과 지원대상의 합리적 선정(selectivity)을 병행
- 그러나 유럽의 재정 위기에서 나타나듯이 국별 재정 상황에 따라 정부의 역할에 차이 노정
 - 향후 세계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고 국별로 부정적인 나라들이 많아 지혜로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증대
- 국별 주요 동향 및 추진정책에 대한 논의
 - EU: 2010년 이후 중소기업 부문이 회복되고 있으나 고용에서 완만한 추이, 부가가치와 고용에서 모두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독일, 영국, 스웨덴, 오스트리아, 루마니아 등을 제외하면 다소 부진
 - 터키: 경제 위기 이후 금융지원 구조의 합리성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에게 자금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
 - 포르투갈: 신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,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 프로그램의 지원체계를 도모
 - 스위스: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간접적인 지원 노

력 경주, 특히 스위스 프랑의 평가절상에 따른 수출경쟁력 둔화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과 정부의 협조(환율 변화와 수출 경쟁력 사이의 시차에 주목)

- 독일: 금융에서 고위험 창업기업의 지원을 위한 risk capital의 육성, 다양한 innovation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high leverage effect 추구, 노동시장에서 skilled labour 육성 지원 등을 도모

□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

○ OECD Scoreboard on SME & Entrepreneurship Financing

- 중소기업과 기업가의 금융 접근 정도를 국별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체계 구축

- 2010년 pilot 단계를 확장하여 2011년 최초 작업 추진
- 21개 참여국에 대한 통계와 Basel III의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

- share of SME loans in business loans, SME loan guarantees, SME loans authorized / SME loans requested, interest rate spreads between large and small enterprises, venture capital and growth capital 등 14개의 핵심지표로 구성

- 금융기관 통계에서 국별 기업규모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을 정확히 분류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있고, venture capital을 비롯한 growth capital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성 제기

○ Credit Mediation and Mutual Guarantee Societies

- Credit Mediation은 기업가정신의 발현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

금융에 대한 효율적 접근 모색

- 특히 고위험 고성장 중소기업의 금융을 촉진하기 위해 business angel investor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, 크게 미흡한 상황
- 1단계로 Credit Mediation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, Credit Mediation과 Mutual Guarantee Societies의 성격에 차이가 있는 만큼 별개로 추진할 필요성 제기

□ 녹색성장과 중소기업

○ Driving Eco-Innovation: the Role of Demand-side Policies and Business Model

- eco-innovation을 위한 수요 측면 지원정책은 ①공공구매, ②성과 표준, ③기술 표준, ④price-based measures, ⑤상업화 금융, ⑥네트워크와 파트너십 등의 범주로 구성
- 수요 측면 지원정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위험요소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
- 정책 범주별로 각국의 정책사례와 기업모델의 협조 요망

- 특히 27개 국가의 95개 기업에 대한 사례조사가 진행 중인데, 적절한 중소기업 eco-innovation model이 있으면 소개 요망, 이를 통해 보다 적합한 business model 도출 필요

○ SMEs and Entrepreneurship: Green Growth, Innovation and Employment

- 녹색산업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은 분야별로 많은 차이

- 물 공급, 물 관리, 폐수 처리 분야에서 혁신적 초기기업들이 niche 시장 진출
 - eco-construction과 같은 규제 관련 시장은 다수 소기업 참여
 - 세분화된 재생에너지 분야는 중소기업이 주도
- 중소기업의 eco-innovation에서 주요 장애요소는 금융(특히 venture capital의 부족), 수요의 불확실성, 기술적 gap 등
 - eco-innovation에서의 중소기업 기여도를 양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, 기업별·부문별 사례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필요
 - Driving Eco-Innovation 작업과 SMEs and Entrepreneurship 작업이 상호 중복되지 않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정과 협조가 필요

□ 중소기업과 기업가정신 관련 통계 정비

- EIP(Entrepreneurship Indicators Program)는 3가지 측면으로 구성된 지표체계 하에서 여성기업가 통계에 집중하여 작업을 추진 중
 - ①기업단위로서 여성과 남성 소유 기업의 특성, ②여성과 남성 기업가의 특성, ③여성기업가의 사회적·정책적 결정요소의 3가지 측면
- 여성기업가 통계 작성에서 나타나고 있는 애로사항
 - 기업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, 기업 등기부에서 성별 구성 데이터를 확보하기 곤란
 - 기업가 특성과 기업성과를 연결하기에 적절한 데이터의 부족

- 여성기업가의 경우 self-employed entrepreneur의 분류와 포함 여부에 따라 통계 상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 필요
 - 또한 minority ownership의 처리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
 - 이와 함께 공식통계를 사용할 경우 포함되지 않는 informal sector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필요

□ EU의 중소기업법(Small Business Act)에 대한 2011년 review

- SBA review의 기본원칙은 기업가 태도를 양양하기 위해 시장접근과 금융접근을 원활화하고 행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governance의 모색
 - 주요 목표로 ①Smart regulation for smart growth -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rules, ②SME Test for all proposals for new legislation, ③One-stop-shops - no need to resubmit documents that are already with administration 등
- Better and easier access to capital
 -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을 통해 2012년까지 20만개 중소기업 추가 혜택
 - 중소기업의 EU 기금에 대한 지원규정 완화
 - venture capital의 중소기업 투자 촉진
 - 중소기업의 금융 관련 인터넷 접근 확대 및 편의성 증진
- Better and easier access to markets
 - e-procurement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

- 불공정 상거래 행위 근절
 - 상품의 원산지 labelling 개선
 - EU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추진
- SBA governance의 개선
 - 집행과정에 대한 monitoring 강화
 - European SME-Envoy network: SME Test, 업계의견 수렴 등
 - 혁신적인 정책방안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더욱 중요
 - One-stop-shops와 같은 정책방안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면밀한 검토 필요
 - 추진정책과 함께 그 정책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평가의 필요성 제기

□ 중동과 북아프리카(MENA) 지역의 신생기업 육성

- MENA(Middle East & North Africa) 지역에 대한 OECD의 기여방안으로서 이 지역 신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
 - WPSMEE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정책 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작업 추진 요망
- 기업 창출에 있어서 공공정책의 역할, MENA 지역에서 기업창출 현황을 중심으로 작업을 추진 중
 - 신생기업의 발전과정을 ①배아단계, ②설립단계, ③성장·확대단계

로 나누어 단계별 접근 추진

- 이러한 작업 추진에 각국의 사례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유용한 시사점 도출 가능
 - WPSMEE에 참여하고 있는 각국에서 적절한 사례가 있으면 작업 팀에 소개하여 주기를 요망

□ 2013~14년의 작업 프로그램과 예산

- OECD에서 G20 회의의 주요 agenda에 속하는 중소기업 금융, entrepreneurship, youth employment 등에 대한 기여
 - 이 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작업이 추진될 필요
 - 특히 각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문제와 social dividing의 해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
- 사무국에서 WPSMEE의 추진과제로 6개 분야 제시
 - ①SME & entrepreneurship financing and taxation
 - ②Innovation, SMEs and entrepreneurship
 - ③Policy levers for SMEs and entrepreneurship
 - ④Globalization, SMEs and entrepreneurship
 - ⑤Evaluation of SME & entrepreneurship issues and policies
 - ⑥Entrepreneurship and social inclusion
- financing과 innovation이 양대 축을 형성하고 다른 주제들을 부가하여 추진할 필요
 - financing은 재정불안에 따른 재원조달의 중요성과 함께 venture

capital, business angel과 같은 equity capital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, innovation은 기업 경쟁력과 성장의 원천으로서 중요

- skilled labour 육성과 global market 진출도 중요
- 공공예산 감축에 따른 social inclusion도 중요하며, 이를 위해 micro financing, social investment, social entrepreneur에 대한 관심 필요

□ 고성장 시장에의 중소기업 참여 확대

- 적절한 분석을 위해 firm-level의 micro-economic data가 필요한데 이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작업 수행의 어려움
- 기업 데이터를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례조사를 적극 활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으면 보다 풍성한 작업 결과의 도출 가능
- 고성장 시장을 BRICs 등으로 미리 제한하지 말고 global market 대상의 통계적 분석방법을 활용하면 더욱 좋을 것으로 판단
- 통계분석 시 절대값과 상대값을 사용할 경우의 장단점을 감안하여 적절히 활용할 필요

VI. 평가

- WPSMEE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작업에서 각국의 정책사례와 기업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은 바,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 및 중소기업 발전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
- 정책 분야별로 영어로 된 분석작업을 추진하고 이를 OECD의 작업팀과 공유할 필요

- 녹색성장 지원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사례가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 좋은 보기
- WPSMEE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대상이 중소기업인만큼 추진 중인 작업의 데이터에서 macro 데이터뿐만 아니라 firm-level의 micro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,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micro 데이터를 정비하고 확충해 나갈 필요
- WPSMEE에서 발간되는 각종 작업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데이터가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, 우리나라 통계를 정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야 할 필요
- 현재 WPSMEE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국가가 7개국에 이를 정도로 WPSMEE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, 우리나라도 동 작업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협력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